

금란청년  
매일 주와 함께

2014 February 2월  
DAILY WITH GOD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물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히브리서 12:1

Run with  
perseverance  
믿음의 경주

금란청년

“매일 주와 함께”

Daily With God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시편119:9)

How can a young man keep his way pure?  
By living according to your word.(Psalms119:9)

본 권은 일일 말씀 묵상과 주일 영성 일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 일일 말씀 묵상 활용방법

- ① Commentary 항목은 본문 말씀에 대한 해석 및 묵상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② Application 항목은 본문 말씀에 대한 말씀 묵상 및 적용 내용을 기록한다.

#### 2. 주일 영성 일기 활용방법

- ① '매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에서 동행 계획 세우기와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는 속회 시간에 속원들과 함께 작성한 내용을 서로 나눈다.
- ② 영성일기는 주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개인적으로 주일 하루 주신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해야 할 제목들과 기도 제목들을 작성한다.

## 1. 우리 교회 기도제목

- 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미래, 안보, 안정, 경제를 위하여)
- ② 감독님 국내외 집회와 건강을 위하여
- ③ 담임목사님 맡겨진 사명과 건강을 위하여
- ④ 세계선교와 2020 군복음화와 군목님들을 위하여  
(우리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을 위하여)
- ⑤ 교회부흥과 금년도 목표를 위하여(130,000명)  
한 속회 1명씩 더 참석을 위하여(2300속 속회 부흥)
- ⑥ 기독교 학교 준비와 설립을 위하여

## 2. 청년회 연합 기도제목

- ①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청년 신앙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예배와 전도가 삶이 되는 금란 청년이 되기 위하여
- ② 청년회 담당전도사와 개체청년회 임원들이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하여
- ③ 청년회 부흥1000명, 선교1000명을 통하여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 ④ 청년회 토요예배와 주일속회모임의 부흥을 위하여
- ⑤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군대, 유학간 청년들을 위하여
- ⑥ 새가족들이 믿음으로 청년회에 잘 정착하기 위하여
- ⑦ 청년들의 인가 귀도와 만남의 축복을 위하여
- ⑧ 2014년 1월에 등반한 신입청년들이 청년회에 잘 정착하도록
- ⑨ 2014년 3월 1일(토)~2일(주일) 1차 재적 총동원을 위해서
- ⑩ 6개월 단기선교를 떠난 이은지, 김소라, 김선영 청년회 단기선교사를 위해

### 3. 개체 청년회 기도제목

### 4. 속회원(니눔팀원) 중보 기도제목

36.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37.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38. 밭은 세상ियो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39.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यो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40.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1.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42.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43. 그 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36. Then he left the crowd and went into the house. His disciples came to him and said, "Explain to us the parable of the weeds in the field."
37. He answered, "The one who sowed the good seed is the Son of Man.
38. The field is the world, and the good seed stands for the sons of the kingdom. The weeds are the sons of the evil one,
39. and the enemy who sows them is the devil. The harvest is the end of the age, and the harvesters are angels.
40. "As the weeds are pulled up and burned in the fire, so it will be at the end of the age.
41. The Son of Man will send out his angels, and they will weed out of his kingdom everything that causes sin and all who do evil.
42. They will throw them into the fiery furnace, where there will be weeping and gnashing of teeth.
43. Then the righteous will shine like the sun in the kingdom of their Father. He who has ears, let him hear.

## Commentary

- ①성도들은 영적 추수 곧 심판의 날을 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이 결코 영원히 존속되지는 않으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때가 되면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열매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 ②보화와 진주의 비유는 천국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포기 할 줄 아는 지혜를 지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③자신의 소유를 팔아 밭에 감추인 보화, 진주를 사는 장사꾼과 같이 나 자신은 지금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으로 인해 감수해야 할 희생과 헌신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또한 그 천국을 가장 가치있고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 44.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 45.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 46.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 47.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 48. 그물에 가득하매 물 가로 끌어 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 49.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 내어
- 50.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 44.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treasure hidden in a field. When a man found it, he hid it again, and then in his joy went and sold all he had and bought that field.
- 45. "Again,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merchant looking for fine pearls.
- 46. When he found one of great value, he went away and sold everything he had and bought it.
- 47. "Once again,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net that was let down into the lake and caught all kinds of fish.
- 48. When it was full, the fishermen pulled it up on the shore. Then they sat down and collected the good fish in baskets, but threw the bad away.
- 49. This is how it will be at the end of the age. The angels will come and separate the wicked from the righteous
- 50. and throw them into the fiery furnace, where there will be weeping and gnashing of teeth.

##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 1. '매일 주와 함께' 동행 하는 삶 | 주일 속회 시간에 작성하고 나눕니다.

### (1) 동행 계획 세우기

한 주 동안 매일주와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신앙 생활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웁니다.

- ① 기도 생활
- ② 말씀 생활
- ③ 예배 및 교회 모임
- ④ 전도 및 교제
- ⑤ 기타

### (2)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한 주간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선한 일 한 가지씩을 적어보세요.

- ① 가정
- ② 학교 및 직장
- ③ 기타

## 2. 영성 일기 |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개인적으로 하루를 마감하며 작성합니다.

### (1) 감사 일기

오늘 주일 하루 동안 주님이 주신 은혜를 묵상하면서, 감사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 (2) 기도 일기

한 주간 기도해야 할 기도제목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개인 및 중보 기도 제목)

51.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  
되 그러하오이다

52.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53.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  
곳을 떠나서

54.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  
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  
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51. "Have you understood all these things?" Jesus  
asked. "Yes," they replied.

52. He said to them, "Therefore every teacher  
of the law who has been instructed about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the owner of a house  
who brings out of his storeroom new treasures as  
well as old."

53. When Jesus had finished these parables, he  
moved on from there.

54. Coming to his hometown, he began teaching  
the people in their synagogue, and they were  
amazed. "Where did this man get this wisdom and  
these miraculous powers?" they asked.

## Commentary

①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고향 나사렛으로 잠시 돌아가셨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왕  
적 권능을 드러내신 일들에 관한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불신앙적인 태도를 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불신하고 배척했다. 아마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들과 함께 지냈던  
때의 육신적 모습만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이미 공생애 사역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메시아 직분과 왕적 권능 그  
리고 신성을 결코 인정하려 들지 않았던 것 같다. 따라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불신앙을 인하여 고향 나사렛에서  
구태여 많은 능력을 행치 않으셨다.

②나의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으로 인해 예수님의 능력과 행하심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가? 매일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왕권과 예수님의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자.

55.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56.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나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57.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58.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55. "Isn't this the carpenter's son? Isn't his mother's name Mary, and aren't his brothers James, Joseph, Simon and Judas?"

56. Aren't all his sisters with us? Where then did this man get all these things?"

57. And they took offense at him. But Jesus said to them, "Only in his hometown and in his own house is a prophet without honor."

58. And he did not do many miracles there because of their lack of faith.

##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1. 그 때에 분봉 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2.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3.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4.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5.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6.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1. At that time Herod the tetrarch heard the reports about Jesus,
2. and he said to his attendants, "This is John the Baptist; he has risen from the dead! That is why miraculous powers are at work in him."
3. Now Herod had arrested John and bound him and put him in prison because of Herodias, his brother Philip's wife,
4. for John had been saying to him: "It is not lawful for you to have her."
5. Herod wanted to kill John, but he was afraid of the people, because they considered him a prophet.
6. On Herod's birthday the daughter of Herodias danced for them and pleased Herod so much

## Commentary

①세례요한이 투옥당한 원인은 헤롯 안디바의 근친상간을 지적하면서 비난했기 때문이었는데, 결국 세례요한은 헤롯의 경솔한 맹세와 헤로디아의 간계로 말미암아 참수형에 처해지고 말았다.

②헤롯은 세례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하며 보호하려는 태도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세례요한의 말을 들을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기꺼이 그의 말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지녔다(막6:20). 하지만 그와 같은 자신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세례요한을 감옥속에 가두어 놓고 있었으며, 취중에 행하여진 경솔한 맹세를 지키기 위해 참수형을 명령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예수님께 대해 호감을 느끼고 복음을 긍정적으로 대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하나님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

③나도 헤롯처럼 예수님과 복음에 대하여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나에게 있어 예수님은 단지 호감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분으로만 그치고 있는가, 아니면 희생하며 헌신할 만큼 소중한 분이신가?

7.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8.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9.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10.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11.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12.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7. that he promised with an oath to give her whatever she asked.
8. Prompted by her mother, she said, "Give me here on a platter the head of John the Baptist."
9. The king was distressed, but because of his oaths and his dinner guests, he ordered that her request be granted
10. and had John beheaded in the prison.
11. His head was brought in on a platter and given to the girl, who carried it to her mother.
12. John's disciples came and took his body and buried it. Then they went and told Jesus.

##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13.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14.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15.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야 이르되 이 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16.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17.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13. When Jesus heard what had happened, he withdrew by boat privately to a solitary place. Hearing of this, the crowds followed him on foot from the towns.

14. When Jesus landed and saw a large crowd, he had compassion on them and healed their sick.

15. As evening approached, the disciples came to him and said, "This is a remote place, and it's already getting late. Send the crowds away, so they can go to the villages and buy themselves some food."

16. Jesus replied, "They do not need to go away.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17. "We have here only five loaves of bread and two fish," they answered.

## Commentary

①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이적중에서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에 대한 사랑과 자비(14절), 제자들의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야 할 사명(16절),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간의 육신적 고통과 영적 갈급함을 동시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시라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다.

②떡 다섯개와 물고기 두마리와 같이 우리가 보기에 부족하고 작아보일지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드릴 때에 그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놀랍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다.

지금 나에게 있어 작아보이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드러야 하는 것과 삶의 영역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더 크게 쓰여지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18.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19.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20.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21.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 명이 나 되었더라

18. "Bring them here to me," he said.

19. And he directed the people to sit down on the grass. Taking the five loaves and the two fish and looking up to heaven, he gave thanks and broke the loaves. Then he gave them to the disciples, and the disciples gave them to the people.

20. They all ate and were satisfied, and the disciples picked up twelve basketfuls of broken pieces that were left over.

21. The number of those who ate was about five thousand men, besides women and children.

##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22.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23.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24.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 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르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25.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26.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27.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28.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 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29.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22. Immediately Jesus made the disciples get into the boat and go on ahead of him to the other side, while he dismissed the crowd.
23. After he had dismissed them, he went up on a mountainside by himself to pray. When evening came, he was there alone,
24. but the boat was already a considerable distance from land, buffeted by the waves because the wind was against it.
25. During the fourth watch of the night Jesus went out to them, walking on the lake.
26. When the disciples saw him walking on the lake, they were terrified. "It's a ghost," they said, and cried out in fear.
27. But Jesus immediately said to them: "Take courage! It is I. Don't be afraid."
28. "Lord, if it's you," Peter replied, "tell me to come to you on the water."
29. "Come," he said. Then Peter got down out of the boat, walked on the water and came toward Jesus.

## Commentary

①갈릴리 바다의 거센 풍랑속에서 어려움을 겪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물위를 걸어서 자신들에게로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님을 유령으로 오해하며 무서워 소리를 질렀다.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②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 갈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눈을 돌려서 풍랑을 쳐다보았을 때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그만 물 속에 빠지고 말았다.

③지금 나를 힘들게 하며 흔들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또 다시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은가?

30.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32.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33.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34.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35. 그 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36.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30. But when he saw the wind, he was afraid and, beginning to sink, cried out, "Lord, save me!"
31. Immediately Jesus reached out his hand and caught him. "You of little faith," he said, "why did you doubt?"
32. And when they climbed into the boat, the wind died down.
33. Then those who were in the boat worshiped him, saying, "Truly you are the Son of God."
34. When they had crossed over, they landed at Gennesaret.
35. And when the men of that place recognized Jesus, they sent word to all the surrounding country. People brought all their sick to him
36. and begged him to let the sick just touch the edge of his cloak, and all who touched him were healed.

##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1. 그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2.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냐

3.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4.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5.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거니와

1. Then some Pharisees and teachers of the law came to Jesus from Jerusalem and asked,

2. "Why do your disciples break the tradition of the elders? They don't wash their hands before they eat!"

3. Jesus replied, "And why do you break the command of God for the sake of your tradition?"

4. For God said,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and 'Anyone who curses his father or mother must be put to death.'

5. But you say that if a man says to his father or mother, 'Whatever help you might otherwise have received from me is a gift devoted to God,'

## Commentary

①아무리 위대한 학자와 사상가의 학설이나 주장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 될수 있는 권위를 갖지 못한다. 하지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 학자의 가르침과 해석을 규제화시킨 전통을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시하는 잘못을 범했다.

②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봉사를 구실로 삼아 자기 마음대로 가정을 버리거나, 부모 형제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 위한 핑계로 거룩한 '고르반' 을 악용하게 되었다.

③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내가 더 권위를 두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성경보다는 유명서적 읽는 것을 더 즐겨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를 핑계삼아 마땅히 해야할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가?

6.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7. 외식하는 자들이 이사가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8.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9.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10.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6. he is not to 'honor his father' with it. Thus you nullify the word of God for the sake of your tradition.

7. You hypocrites! Isaiah was right when he prophesied about you:

8. "These people honor me with their lips, but their hearts are far from me.

9. They worship me in vain; their teachings are but rules taught by men."

10. Jesus called the crowd to him and said, "Listen and understand.

##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11.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12.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1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14.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15.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11. What goes into a man's mouth does not make him 'unclean,' but what comes out of his mouth, that is what makes him 'unclean.'"
12. Then the disciples came to him and asked, "Do you know that the Pharisees were offended when they heard this?"
13. He replied, "Every plant that my heavenly Father has not planted will be pulled up by the roots.
14. Leave them; they are blind guides. If a blind man leads a blind man, both will fall into a pit."
15. Peter said, "Explain the parable to us."

## Commentary

- ①맹인(소경)이 맹인을 인도한다는 표현에서 앞의 맹인은 진리를 분간치 못하는 영적 맹인이면서도 스스로 진리를 가르치는 지도자라고 자처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키며, 뒤의 맹인은 영적진리에 무지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유혹에 현혹되어 그들을 자신의 지도자로 생각했던 어리석은 백성들을 가리킨다.
- ②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기 위해 일부러 경건한 척 꾸미는 외식주의에 빠지기 보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기 위해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신령과 진정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한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입으로 멋진 신앙 고백을 하며, 겉으로 거룩하고 의로운 생활을 했으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온갖 추악한 생각과 죄악이 가득차 있었다.
- ③나는 영적리더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맹인은 아닌가? 나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것들인가 아니면 영을 죽이는 것들인가?

16.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17.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18.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20.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16. "Are you still so dull?" Jesus asked them.

17. "Don't you see that whatever enters the mouth goes into the stomach and then out of the body?"

18. But the things that come out of the mouth come from the heart, and these make a man 'unclean.'

19. For out of the heart come evil thoughts, murder, adultery, sexual immorality, theft, false testimony, slander.

20. These are what make a man 'unclean'; but eating with unwashed hands does not make him 'unclean.'"

##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 1. '매일 주와 함께' 동행 하는 삶 | 주일 속회 시간에 작성하고 나눕니다.

### (1) 동행 계획 세우기

한 주 동안 매일주와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신앙 생활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웁니다.

- ① 기도 생활
- ② 말씀 생활
- ③ 예배 및 교회 모임
- ④ 전도 및 교제
- ⑤ 기타

### (2)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한 주간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선한 일 한 가지씩을 적어보세요.

- ① 가정
- ② 학교 및 직장
- ③ 기타

## 2. 영성 일기 |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개인적으로 하루를 마감하며 작성합니다.

### (1) 감사 일기

오늘 주일 하루 동안 주님이 주신 은혜를 묵상하면서, 감사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 (2) 기도 일기

한 주간 기도해야 할 기도제목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개인 및 중보 기도 제목)

21.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22.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투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23.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2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25.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6.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21. Leaving that place, Jesus withdrew to the region of Tyre and Sidon.

22. A Canaanite woman from that vicinity came to him, crying out, "Lord,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My daughter is suffering terribly from demon-possession."

23. Jesus did not answer a word. So his disciples came to him and urged him, "Send her away, for she keeps crying out after us."

24. He answered, "I was sent only to the lost sheep of Israel."

25. The woman came and knelt before him. "Lord, help me!" she said.

26. He replied, "It is not right to take the children's bread and toss it to their dogs."

## Commentary

①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사건은 당시의 가나안 족속이 이방인들중에서도 가장 천대받던 민족이었다는 점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축복이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그 효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

②우리는 끈질긴 기도와 굳센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온전히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을 누릴 수 있어 야만 한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침묵과 냉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자세를 지녀 축복받은 것이다.

③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들이 혹시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원망하거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진정 하나님앞에 겸손함으로 인내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27. 여자가 이르되 주여 울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  
나이다 하니

28.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  
니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29.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  
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30.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  
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매 고쳐 주시니

31.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  
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  
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27. "Yes, Lord," she said, "but even the dogs eat  
the crumbs that fall from their masters' table."

28. Then Jesus answered, "Woman, you have  
great faith! Your request is granted." And her  
daughter was healed from that very hour.

29. Jesus left there and went along the Sea of  
Galilee. Then he went up on a mountainside and  
sat down.

30. Great crowds came to him, bringing the lame,  
the blind, the crippled, the mute and many others,  
and laid them at his feet; and he healed them.

31. The people were amazed when they saw the  
mute speaking, the crippled made well, the lame  
walking and the blind seeing. And they praised the  
God of Israel.

##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32.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 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33.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35.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32. Jesus called his disciples to him and said, "I have compassion for these people; they have already been with me three days and have nothing to eat. I do not want to send them away hungry, or they may collapse on the way."

33. His disciples answered, "Where could we get enough bread in this remote place to feed such a crowd?"

34. "How many loaves do you have?" Jesus asked. "Seven," they replied, "and a few small fish."

35. He told the crowd to sit down on the ground.

## Commentary

①본 내용은 칠병이어 이적이다. 즉, 떡 일곱개와 물고기 두마리로 4천명을 먹이신 사건이다. 이것은 오병이어 이적과는 별개의 사건이다.

②우리는 궁핍과 곤고에 처하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풍성함을 소망하며 결코 낙심치 말아야 된다. 제자들은 마치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미 오병이어로 오천명을 먹이신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은총을 망각한 채 또 다시 조그마한 어려움 앞에서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불신앙적 태도를 지지고 있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③오병이어를 경험하고도 그 은총을 망각한채 당연한 문제앞에 고민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계심을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36.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37.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38.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사천 명이었더라

39. 예수께서 무리를 흠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36. Then he took the seven loaves and the fish,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them and gave them to the disciples, and they in turn to the people.

37. They all ate and were satisfied. Afterward the disciples picked up seven basketfuls of broken pieces that were left over.

38. The number of those who ate was four thousand, besides women and children.

39. After Jesus had sent the crowd away, he got into the boat and went to the vicinity of Magadan.

##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1.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2.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3.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꺾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4.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 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5.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6.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1. The Pharisees and Sadducees came to Jesus and tested him by asking him to show them a sign from heaven.
2. He replied, "When evening comes, you say, 'It will be fair weather, for the sky is red,'
3. and in the morning, 'Today it will be stormy, for the sky is red and overcast.' You know how to interpret the appearance of the sky, but you cannot interpret the signs of the times.
4. A wicked and adulterous generation looks for a miraculous sign, but none will be given it except the sign of Jonah." Jesus then left them and went away.
5. When they went across the lake, the disciples forgot to take bread.
6. "Be careful," Jesus said to them. "Be on your guard against the yeast of the Pharisees and Sadducees."

## Commentary

①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 주도록 요청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어떤 표적도 소용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자신의 죽임과 부활을 예표하는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만 재차 언급하셨다.

②이적이 반드시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마치 표적을 요구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실존과 예수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을 만한 증거나 이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이적의 증거를 불신하는 자가 굳이 자기 눈으로 새로운 이적을 목격한다고 해서 믿음을 갖게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비록 이적을 체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오로지 성경의 증거만으로 믿음을 갖는 자가 더 복된 것이다.

③나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성공과 풍요로운 삶인가? 나는 진정 영원한 천국의 삶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가?

7.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8.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 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9.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10. 떡 일곱 개로 사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11.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12.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7. They discussed this among themselves and said, "It is because we didn't bring any bread."
8. Aware of their discussion, Jesus asked, "You of little faith, why are you talking among yourselves about having no bread?"
9. Do you still not understand? Don't you remember the five loaves for the five thousand, and how many basketfuls you gathered?
10. Or the seven loaves for the four thousand, and how many basketfuls you gathered?
11. How is it you don't understand that I was not talking to you about bread? But be on your guard against the yeast of the Pharisees and Sadducees."
12. Then they understood that he was not telling them to guard against the yeast used in bread, but against the teaching of the Pharisees and Sadducees.

##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13.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4.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15.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3. When Jesus came to the region of Caesarea Philippi, he asked his disciples, "Who do people say the Son of Man is?"

14. They replied, "Some say John the Baptist; others say Elijah; and still others, Jeremiah or one of the prophets."

15. "But what about you?" he asked. "Who do you say I am?"

16. Simon Peter answered,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 Commentary

①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대부분의 제자들은 일반인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대답을 하였으나, 베드로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자신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계시는데, 결국 이것은 지금까지의 공생애 사역을 통하여 드러난 바 있는 예수님의 왕적 권능에 대한 재확인이라고 할 수 있다.

②우리의 신앙 고백은 물론 입술로 부터 시작되지만, 마음 중심에서 우리나라에 때에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 진정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자신의 삶 전체를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삶을 사는 것이다.

③하나님이 나의 주 되심을 예배와 찬양을 통해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 나의 삶의 모습속에서는 어떠한가? 여전히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방식대로 나의 원하는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20.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17. Jesus replied, "Blessed are you, Simon son of Jonah, for this was not revealed to you by man, but by my Father in heaven.

18. And I tell you that you are Peter, and 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and the gates of Hades will not overcome it.

19. I will give you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whatever you bind on earth will be bound in heaven, and whatever you loose on earth will be loosed in heaven."

20. Then he warned his disciples not to tell anyone that he was the Christ.

##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21.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22.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 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24.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1. From that time on Jesus began to explain to his disciples that he must go to Jerusalem and suffer many things at the hands of the elders, chief priests and teachers of the law, and that he must be killed and on the third day be raised to life.

22. Peter took him aside and began to rebuke him. "Never, Lord!" he said. "This shall never happen to you!"

23. Jesus turned and said to Peter, "Get behind me, Satan! You are a stumbling block to me; you do not have in mind the things of God, but the things of men."

24.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 Commentary

①우리는 현실적 축복과 이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십자가 수난에 관한 예수님의 예고를 듣고 제자들이 그토록 혼란과 당혹에 빠져든 이유는 지상에 건설될 메시아 왕국에서 자신들의 차이가 될 것이라고 믿었던 영광과 지위에 대한 기대가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육신의 병을 고치고 물질적 축복을 누리겠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실망하여 결국 믿음을 버리게 될 것이다.

②육신의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든다. 훌륭한 신앙고백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칭찬을 한몸에 받았던 베드로가 불과 얼마후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책망을 받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보다 사람의 생각을 더 우선시하였기 때문이다.

③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도 십자가 고난 없는 영광만을, 하나님 보다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은가?

25.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6.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27.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2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25. For whoever wants to save his life will lose it, but whoever loses his life for me will find it.

26. What good will it be for a man if he gains the whole world, yet forfeits his soul? Or what can a man give in exchange for his soul?

27. For the Son of Man is going to come in his Father's glory with his angels, and then he will reward each person according to what he has done.

28. I tell you the truth, some who are standing here will not taste death before they see the Son of Man coming in his kingdom."

##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1.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2.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3. 그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4. 베드로가 예수께 여쭙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5.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6.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7. 예수께서 나와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1. After six days Jesus took with him Peter, James and John the brother of James, and led them up a high mountain by themselves.
2. There he was transfigured before them. His face shone like the sun, and his clothes became as white as the light.
3. Just then there appeared before them Moses and Elijah, talking with Jesus.
4. Peter said to Jesus, "Lord, it is good for us to be here. If you wish, I will put up three shelters -- one for you, one for Moses and one for Elijah."
5. While he was still speaking, a bright cloud enveloped them, and a voice from the cloud said, "This is my Son, whom I love; with him I am well pleased. Listen to him!"
6. When the disciples heard this, they fell facedown to the ground, terrified.
7. But Jesus came and touched them. "Get up," he said. "Don't be afraid."

## Commentary

① 변화산 위에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과 예언들을 성취시키려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변화산 위의 구름속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시내산 위의 구름속에서 울려 퍼진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와 율법에 신적인 권위를 부여했듯이, 그 역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하나님이 인정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② 우리들도 장차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히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된다(고전15:35~58). 주님의 변모와 변화산 위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누릴 영광을 예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날에 임할 영광을 고대하면서, 눈앞의 핍박과 고난을 견디어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③ 지금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기에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받는 불이익과 고난에 대하여 나는 감사함으로 이겨내고 있는가?

8.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9. ○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10.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 이까
11.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12.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13.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8. When they looked up, they saw no one except Jesus.
9. As they were coming down the mountain, Jesus instructed them, "Don't tell anyone what you have seen, until the Son of Man has been raised from the dead."
10. The disciples asked him, "Why then do the teachers of the law say that Elijah must come first?"
11. Jesus replied, "To be sure, Elijah comes and will restore all things.
12. But I tell you, Elijah has already come, and they did not recognize him, but have done to him everything they wished. In the same way the Son of Man is going to suffer at their hands."
13. Then the disciples understood that he was talking to them about John the Baptist.

##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 1. '매일 주와 함께' 동행 하는 삶 | 주일 속회 시간에 작성하고 나눕니다.

### (1) 동행 계획 세우기

한 주 동안 매일주와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신앙 생활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웁니다.

- ① 기도 생활
- ② 말씀 생활
- ③ 예배 및 교회 모임
- ④ 전도 및 교제
- ⑤ 기타

### (2)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한 주간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선한 일 한 가지씩을 적어보세요.

- ① 가정
- ② 학교 및 직장
- ③ 기타

2. 영성 일기 |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개인적으로 하루를 마감하며 작성합니다.

(1) 감사 일기

오늘 주일 하루 동안 주님이 주신 은혜를 묵상하면서, 감사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2) 기도 일기

한 주간 기도해야 할 기도제목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개인 및 중보 기도 제목)

14.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15.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16.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14. When they came to the crowd, a man approached Jesus and knelt before him.

15. "Lord, have mercy on my son," he said. "He has seizures and is suffering greatly. He often falls into the fire or into the water.

16. I brought him to your disciples, but they could not heal him."

17. "O unbelieving and perverse generation," Jesus replied, "how long shall I stay with you? How long shall I put up with you? Bring the boy here to me."

## Commentary

①외경상으로 볼 때 본문은 예수님께서 귀신들려 고통당하는 소년을 고치지 못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17절)' 라고 책망하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문맥의 전후를 살펴보면 이 책망은 서기관들과 그에 동조하는 모든 무리들을 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제자들은 믿음이 부족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지만, 당시 서기관과 그에 동조하는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혀 믿지 않았던 완고하고 지극히 불신앙적인 자들이었던 것이다.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이 아닌, 그러한 제자들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서기관들과 그에 동조하는 무리들에 대하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신 것이다.

②겨자씨처럼 어떠한 상황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소망하고 있는가? 나 자신의 부족함을 보진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믿음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모습이 나에게 없는가?

18.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 때부터 나오니라

19. 이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아와 이  
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  
까

20.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  
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  
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  
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21. (없음)

18. Jesus rebuked the demon, and it came out of  
the boy, and he was healed from that moment.

19. Then the disciples came to Jesus in private  
and asked, "Why couldn't we drive it out?"

20. He replied, "Because you have so little faith.  
I tell you the truth, if you have faith as small as a  
mustard seed, you can say to this mountain, 'Move  
from here to there' and it will move. Nothing will  
be impossible for you."

21. (Blank)

##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22.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23.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24.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 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아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 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22. When they came together in Galilee, he said to them, "The Son of Man is going to be betrayed into the hands of men.

23. They will kill him, and on the third day he will be raised to life." And the disciples were filled with grief.

24. After Jesus and his disciples arrived in Capernaum, the collectors of the two-drachma tax came to Peter and asked, "Doesn't your teacher pay the temple tax?"

## Commentary

①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자야말로 모든 환난을 이기고 담대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수난을 거듭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이유는 실제로 그런 일이 닥칠 때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고, 또한 믿음을 버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②성전세는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의 표시로 드린 '생명의 속전' 으로서,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들이 성전의 유지와 관리를 위해 1년에 반세겔씩 바치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의 주인이 되시므로 결코 성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됨에도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납부하신 것은 십자가 수난과 죽음이라는 메시아적 과업을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을 피하시기 위함이었다.

③만유의 주관자이신 예수님도 이 세상의 법을 지키셨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법과 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자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신의 유익에 따라 법을 이용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25.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26.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27.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25. "Yes, he does," he replied. When Peter came into the house, Jesus was the first to speak. "What do you think, Simon?" he asked. "From whom do the kings of the earth collect duty and taxes -- from their own sons or from others?"

26. "From others," Peter answered. "Then the sons are exempt," Jesus said to him.

27. "But so that we may not offend them, go to the lake and throw out your line. Take the first fish you catch; open its mouth and you will find a four-drachma coin. Take it and give it to them for my tax and yours."

##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1. 그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2.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3.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5.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6.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1. At that time the disciples came to Jesus and asked, "Who is the greatest in the kingdom of heaven?"
2. He called a little child and had him stand among them.
3. And he said: "I tell you the truth, unless you change and become like little children, you will never enter the kingdom of heaven.
4. Therefore, whoever humbles himself like this child is the greatest in the kingdom of heaven.
5. "And whoever welcomes a little child like this in my name welcomes me.
6. But if anyone causes one of these little ones who believe in me to sin, it would be better for him to have a large millstone hung around his neck and to be drowned in the depths of the sea.

## Commentary

①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사도로 세우신 목적을 잊어버린 채, 각자 헛된 욕심에 이끌려 서로 다투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어린 아이를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세를 지녀야만 하며, 아울러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케 해서 안된다는 것과 그 영혼의 중요성을 교훈하신다.  
②우리는 죄악과 불의에 대해 단호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신체의 일부를 차라리 잘라 버리도록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과감하고 단호한 자세를 취하라는 의미이다.

③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혹 나의 세상 욕심을 채우기 위함은 아닌지 돌아보자. 또한, 나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단호하게 끊을 수 있도록 결단하고 기도하자.

7.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8.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거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9.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10. 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11. (없음)

7. "Woe to the world because of the things that cause people to sin! Such things must come, but woe to the man through whom they come!"

8. If your hand or your foot causes you to sin cut it off and throw it away. It is better for you to enter life maimed or crippled than to have two hands or two feet and be thrown into eternal fire.

9. And if your eye causes you to sin, gouge it out and throw it away. It is better for you to enter life with one eye than to have two eyes and be thrown into the fire of hell.

10. "See that you do not look down on one of these little ones. For I tell you that their angels in heaven always see the face of my Father in heaven."

##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12.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나 만일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13.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14.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15.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12. "What do you think? If a man owns a hundred sheep, and one of them wanders away, will he not leave the ninety-nine on the hills and go to look for the one that wandered off?

13. And if he finds it, I tell you the truth, he is happier about that one sheep than about the ninety-nine that did not wander off.

14. In the same way your Father in heaven is not willing that any of these little ones should be lost.

15. "If your brother sins against you, go and show him his fault, just between the two of you. If he listens to you, you have won your brother over.

## Commentary

①예수님께서는 양 일백마리의 비유를 통해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말하시며, 한 영혼이라도 실족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강조하십니다. 또한, 앞에서는 자신의 범죄와 잘못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말씀하시지만, 여기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②비록 신앙 공동체인 교회라 할지라도, 갖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아직 완전히 성화된 것은 아니므로 얼마든지 죄악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안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회의에 빠지거나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사랑과 권면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③영혼구원에 대한 나의 관심도는 어느 정도인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내가 속한 신앙공동체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 혹은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기도로 중보하는 시간을 갖자.

16.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17.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9.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16. But if he will not listen, take one or two others along, so that every matter may be established by the testimony of two or three witnesses.'

17. If he refuses to listen to them, tell it to the church; and if he refuses to listen even to the church, treat him as you would a pagan or a tax collector.

18. "I tell you the truth, whatever you bind on earth will be bound in heaven, and whatever you loose on earth will be loosed in heaven.

19. "Again, I tell you that if two of you on earth agree about anything you ask for, it will be done for you by my Father in heaven.

20. For where two or three come together in my name, there am I with them."

##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21. ○그 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22.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 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23.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24.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25.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26.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27.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28.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21. Then Peter came to Jesus and asked, "Lord, how many times shall I forgive my brother when he sins against me? Up to seven times?"
22. Jesus answered, "I tell you, not seven times, but seventy-seven times.
23. "Therefore,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king who wanted to settle accounts with his servants.
24. As he began the settlement, a man who owed him ten thousand talents was brought to him.
25. Since he was not able to pay, the master ordered that he and his wife and his children and all that he had be sold to repay the debt.
26. "The servant fell on his knees before him. 'Be patient with me,' he begged, 'and I will pay back everything.'
27. The servant's master took pity on him, canceled the debt and let him go.
28. "But when that servant went out, he found one of his fellow servants who owed him a hundred denarii. He grabbed him and began to choke him. 'Pay back what you owe me!' he demanded

## Commentary

- ① 당시의 유대 랍비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적어도 3번까지는 용서하라고 가르쳤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일흔번씩 일곱번' 즉 무한한 포용력을 가지고 용서하라고 가르치신다. 이웃에 대한 용서와 사랑은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이다. 왜냐하면 친히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 ② 이 비유에 해당하는 일만 달란트 빚진 자는 자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었다. 따라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직 주인에게 자비를 구하는 길 밖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빚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의 빚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대속해 주셨다.
- ③ 나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잊어버리고, 나의 가족, 친구, 동료와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 또는 나 자신에 대하여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29.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값으리이다 하되
30.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31.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32.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로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나 하고
34.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5.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29. "His fellow servant fell to his knees and begged him, 'Be patient with me, and I will pay you back.'
30. "But he refused. Instead, he went off and had the man thrown into prison until he could pay the debt.
31. When the other servants saw what had happened, they were greatly distressed and went and told their master everything that had happened.
32. "Then the master called the servant in. 'You wicked servant,' he said, 'I canceled all that debt of yours because you begged me to.
33. Shouldn't you have had mercy on your fellow servant just as I had on you?'
34. In anger his master turned him over to the jailers to be tortured, until he should pay back all he owed.
35. "This is how my heavenly Father will treat each of you unless you forgive your brother from your heart."

##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1.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 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2.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3.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5.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6.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1. When Jesus had finished saying these things, he left Galilee and went into the region of Judea to the other side of the Jordan.
2. Large crowds followed him, and he healed them there.
3. Some Pharisees came to him to test him. They asked, "Is it lawful for a man to divorce his wife for any and every reason?"
4. "Haven't you read," he replied, "that at the beginning the Creator 'made them male and female,'
5. and said, 'For this reason a man will leave his father and mother and be united to his wife, and the two will become one flesh'?
6. So they are no longer two, but one. Therefore what God has joined together, let man not separate."

## Commentary

①예수님께서서는 바리새인들의 음모에 찬 도전에 직면하시게 되었는데, 그들은 신학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혼에 관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이번에도 역시 그들의 음모를 간파하셨으며, 타락한 인간의 완악함에서 비롯된 이혼보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입각한 결혼에 관심을 더 집중시키면서, 부부사이의 전인격적 결합을 통한 상호신뢰와 헌신에 대해 말씀하셨다.

②이혼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인하여 비롯된 제도이다. 비록 율법에 이혼을 허락하는 규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결코 이혼을 정당화시키거나 장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완악한 인간들이 더 큰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어쩔수 없이 허용된 조처에 불과하다.

③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가? 바리새인들이 세속적인 결혼관과 가치관으로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한 것처럼 의심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아닌가? 나의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기도하자.

7.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8.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9.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10.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까
11.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12.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7. "Why then," they asked, "did Moses command that a man give his wife a certificate of divorce and send her away?"
8. Jesus replied, "Moses permitted you to divorce your wives because your hearts were hard. But it was not this way from the beginning.
9. I tell you that anyone who divorces his wife, except for marital unfaithfulness, and marries another woman commits adultery."
10. The disciples said to him, "If this is the situation between a husband and wife, it is better not to marry."
11. Jesus replied, "Not everyone can accept this word, but only those to whom it has been given.
12. For some are eunuchs because they were born that way; others were made that way by men; and others have renounced marriage because of the kingdom of heaven. The one who can accept this should accept it."

##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 1. '매일 주와 함께' 동행 하는 삶 | 주일 속회 시간에 작성하고 나눕니다.

### (1) 동행 계획 세우기

한 주 동안 매일주와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신앙 생활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웁니다.

- ① 기도 생활
- ② 말씀 생활
- ③ 예배 및 교회 모임
- ④ 전도 및 교제
- ⑤ 기타

### (2)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한 주간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선한 일 한 가지씩을 적어보세요.

- ① 가정
- ② 학교 및 직장
- ③ 기타

2. 영성 일기 |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개인적으로 하루를 마감하며 작성합니다.

(1) 감사 일기

오늘 주일 하루 동안 주님이 주신 은혜를 묵상하면서, 감사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2) 기도 일기

한 주간 기도해야 할 기도제목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개인 및 중보 기도 제목)

13. ○그 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14.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15.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16.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7.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 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13. Then little children were brought to Jesus for him to place his hands on them and pray for them. But the disciples rebuked those who brought them.

14. Jesus said, "Let the little children come to me, and do not hinder them, for the kingdom of heaven belongs to such as these."

15. When he had placed his hands on them, he went on from there.

16. Now a man came up to Jesus and asked, "Teacher, what good thing must I do to get eternal life?"

17. "Why do you ask me about what is good?" Jesus replied. "There is only One who is good. If you want to enter life, obey the commandments."

## Commentary

①우리는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순수한 믿음의 자세를 지녀야 한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청되는 삶의 태도이기 때문이다.

②예수님을 찾아온 청년은 풍족한 재물과 안정된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결코 방탕에 젖지 않았으며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종교적 열심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갖춘 경건의 지식과 모양에도 불구하고 그가 참된 경건의 능력을 지니지는 못했음을 말씀하셨다. 그것은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데에서 나오는 경건의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③부자 청년은 물질과 재산에 대한 욕심때문에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없었다. 이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데 있어서 아직도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쥐어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18.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하지 말라,

19.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20.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21.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18. "Which ones?" the man inquired. Jesus replied, "Do not murder, do not commit adultery, do not steal, do not give false testimony,

19.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and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20. "All these I have kept," the young man said. "What do I still lack?"

21. Jesus answered, "If you want to be perfect, go, sell your possessions and give to the poor, and you will have treasure in heaven. Then come, follow me."

22. When the young man heard this, he went away sad, because he had great wealth.

##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23.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24.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25.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26.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23.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 tell you the truth, it is hard for a rich man to enter the kingdom of heaven.

24. Again I tell you, it is easier for a camel to go through the eye of a needle than for a rich man to enter the kingdom of God."

25. When the disciples heard this, they were greatly astonished and asked, "Who then can be saved?"

26. Jesus looked at them and said, "With man this is impossible, but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 Commentary

①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얼마나 어려움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이 아연실색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당시 유대 사람들은 물질적 풍요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간주했던 반면, 가난과 질병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결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②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말이라기 보다는 부자라도 천국에 들어갈수는 있지만 그 확률에 있어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임을 의미한다. 또한 여기서 부자는 재산이 많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 지위, 명예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세상적으로 높은 가치의 것을 많이 소유한 사람은 그만큼 천국을 소유하는데 장애가 많은 것이다.

③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경험하고 누리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은 무엇인가? 물질, 지식, 지위, 명예, 경험 등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하자.

27.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대 그 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28.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29.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30.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27. Peter answered him, "We have left everything to follow you! What then will there be for us?"

28. Jesus said to them, "I tell you the truth, at the renewal of all things, when the Son of Man sits on his glorious throne, you who have followed me will also sit on twelve thrones, judging the twelve tribes of Israel.

29. And everyone who has left houses or brothers or sisters or father or mother or children or fields for my sake will receive a hundred times as much and will inherit eternal life.

30. But many who are first will be last, and many who are last will be first.

##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1.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 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2.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3. 또 제삼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놓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4.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5. 제육시와 제구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6. 제십일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 록 놓고 여기 서 있느냐
7.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 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 라
8. 저물때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 꾀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샅을 주라 하니

1.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landowner who went out early in the morning to hire men to work in his vineyard.
2. He agreed to pay them a denarius for the day and sent them into his vineyard.
3. "About the third hour he went out and saw others standing in the marketplace doing nothing.
4. He told them, 'You also go and work in my vineyard, and I will pay you whatever is right.'
5. So they went. "He went out again about the sixth hour and the ninth hour and did the same thing.
6. About the eleventh hour he went out and found still others standing around. He asked them, 'Why have you been standing here all day long doing nothing?'
7. "Because no one has hired us,' they answered. "He said to them, 'You also go and work in my vineyard.'
8. "When evening came, the owner of the vineyard said to his foreman, 'Call the workers and pay them their wages, beginning with the last ones hired and going on to the first.'

## Commentary

- ①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인간의 구원이 스스로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구원의 은총을 누린 자들은 결코 영적인 교만과 나태에 빠지지 말고, 할 수만 있거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
- ②본문에서 가장 먼저 포도원으로 들어와서 일한 품꾼들은 자신들보다 나중에 온 품꾼들이 똑같은 품삯을 받게 된 사실에 대해 불평을 늘어 놓았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족한 줄로 여기며, 절대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
- ③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일꾼 된 자로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교만과 나태하지는 않는지...조금 안다고 불평하며 원망하고 있지는 않는지...나 자신을 돌아보며 첫 사랑을 회복하도록 기도하자.

9. 제십일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10.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11.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12.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13.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14.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15.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므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16.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9. "The workers who were hired about the eleventh hour came and each received a denarius.
10. So when those came who were hired first, they expected to receive more. But each one of them also received a denarius.
11. When they received it, they began to grumble against the landowner.
12. 'These men who were hired last worked only one hour,' they said, 'and you have made them equal to us who have borne the burden of the work and the heat of the day.'
13. "But he answered one of them, 'Friend, I am not being unfair to you. Didn't you agree to work for a denarius?'
14. Take your pay and go. I want to give the man who was hired last the same as I gave you.
15. Don't I have the right to do what I want with my own money? Or are you envious because I am generous?'
16. "So the last will be first, and the first will be last."

##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17.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18.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19.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삼일에 살아나리라
20. ○그 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21.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22.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17. Now as Jesus was going up to Jerusalem, he took the twelve disciples aside and said to them,

18. "We are going up to Jerusalem, and the Son of Man will be betrayed to the chief priest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They will condemn him to death

19. and will turn him over to the Gentiles to be mocked and flogged and crucified. On the third day he will be raised to life!"

20. Then the mother of Zebedee's sons came to Jesus with her sons and, kneeling down, asked a favor of him.

21. "What is it you want?" he asked. She said, "Grant that one of these two sons of mine may sit at your right and the other at your left in your kingdom."

22. "You don't know what you are asking," Jesus said to them. "Can you drink the cup I am going to drink?" "We can," they answered.

## Commentary

①성도들은 고통과 환난속에서라도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수난 예고는 부활에 대한 예고를 수반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현세에 집착하기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도록 일깨우기 위한 것이었다.

②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영동한 자리 다툼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나타나 있다. 제자들은 영적 무지로 인해 여전히 지상에서의 정치적인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못하고 서로 더 높은 명예와 지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 있었다.

③나 자신도 본문에서의 제자들처럼 영적으로 무지하지는 않은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소망하기 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안락과 나의 유익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23.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24.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25.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26.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23. Jesus said to them, "You will indeed drink from my cup, but to sit at my right or left is not for me to grant. These places belong to those for whom they have been prepared by my Father."

24. When the ten heard about this, they were indignant with the two brothers.

25. Jesus called them together and said, "You know that the rulers of the Gentiles lord it over them, and their high officials exercise authority over them.

26. Not so with you. Instead, whoever wants to become great among you must be your servant,

27. and whoever wants to be first must be your slave --

28. just as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29. ○그들이 예리고에서 떠나 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30. 맹인 두 사람이 길 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31.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29. As Jesus and his disciples were leaving Jericho, a large crowd followed him.

30. Two blind men were sitting by the roadside, and when they heard that Jesus was going by, they shouted, "Lord, Son of David, have mercy on us!"

31. The crowd rebuked them and told them to be quiet, but they shouted all the louder, "Lord, Son of David, have mercy on us!"

## Commentary

①예수님께서서는 머지않아 예루살렘에서 당하시게 될 자신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병들고 소외당하는 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조금도 늦추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참된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제자들과 무리들은 두 맹인을 불쌍히 여기는 커녕 오히려 잠잠하라고 꾸짖었다. 성도들은 도움을 원하는 이 땅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②두 맹인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해 주실수 있다는 믿음을 지녔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책망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께 부르짖는 열심을 보였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에도 즉시 응답하지 않는 수도 있지만, 그럴지라도 인내하며 계속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결국 더 큰 축복으로 응답해 주신다.

③나의 주위에 나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가? 기도의 응답이 더딤으로 인해 혹시 낙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작정하며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자.

32.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  
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3.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34.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  
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32. Jesus stopped and called them.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he asked.

33. "Lord," they answered, "we want our sight."

34. Jesus had compassion on them and touched their eyes. Immediately they received their sight and followed him.

##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1.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 산 벧 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2.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3.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4.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일렀으되

5.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니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멩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6.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1. As they approached Jerusalem and came to Bethphage on the Mount of Olives, Jesus sent two disciples,

2. saying to them, "Go to the village ahead of you, and at once you will find a donkey tied there, with her colt by her. Untie them and bring them to me.

3. If anyone says anything to you, tell him that the Lord needs them, and he will send them right away."

4. This took place to fulfill what was spoken through the prophet:

5. "Say to the Daughter of Zion, 'See, your king comes to you, gentle and riding on a donkey, on a colt, the foal of a donkey.'"

6. The disciples went and did as Jesus had instructed them.

## Commentary

①메시아이자 왕이신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으로써, 자신의 신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아울러서 자신의 지상 생애에 있어서 남은 마지막 한 구간이 고난의 연속으로 점철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나타내고 계신 것이다.

②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지만, 결국 그들은 한 구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소란을 부렸다. 당시 유대백성들은 수많은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로마제국으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열렬히 환호했지만, 자신들의 기대가 무산되자 태도가 변한 것이다.

③예수님을 믿으며 헌신하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 당시 유대 백성들처럼 나 자신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 나의 유익에 반하면 그리스도인임을 부정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어떤 환경과 자리에서든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7.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겹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8.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겹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9.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10.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11.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7. They brought the donkey and the colt, placed their cloaks on them, and Jesus sat on them.

8. A very large crowd spread their cloaks on the road, while others cut branches from the trees and spread them on the road.

9. The crowds that went ahead of him and those that followed shouted, "Hosanna to the Son of David!"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Hosanna in the highest!"

10. When Jesus entered Jerusalem, the whole city was stirred and asked, "Who is this?"

11. The crowds answered, "This is Jesus, the prophet from Nazareth in Galilee."

##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Memo.

Memo.

금란청년

“매일 주와 함께”

Daily With God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시편119:9)

How can a young man keep his way pure?  
By living according to your word.(Psalms119:9)

본 권은 금란 청년들의 영성 생활의 성장을 위하여 금란교회 청년회에서 자체 제작한 것입니다.

#### 1. 발행 개요

- ① 발행처 : 금란청년회
- ② 발행일 : 2014년 2월1일
- ③ 디자인 : 표지 (김완석), 내지 (정재상)
- ④ 편 집 : 오성범

#### 2. 참고 및 인용 문헌

- ① 성 경 : 개역 개정 한글 성경, NIV 영어성경, C3TV온라인 성경
- ② 주 석 : 그랜드 종합 주석 (제자원 / 성서 아카데미), 카리스마 종합 주석 (기독지혜사)



2014년 표어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금란청년**”



◀ **청년회 예배 시간 & 장소** ▶

요일별 구분	시 간	장 소
● 주일 대예배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본당 5층 각 팀별 지정석
● 주일 속회모임	주일 3부예배 후 (오후 1:00)	본당 8층 ~ 10층
● 토요 찬양예배	토요일 (오후 7:00)	본당 9층 비전홀
● 금요 데이트 기도회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오후 8:30)	교육관 2층 소예배실